

PVC관, 통합 움직임 불 지피다!

수요감소로 기존 제휴관계 한계 인식 ... 사업통합이 최선의 선택

Kubota와 CI Kasei가 PVC관 사업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양가 각각의 PVC관 사업을 분리해 2005년 4월에 설립하는 공동출자회사에 복속시킨다.

공공투자의 감축이나 주택 착공건수의 감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까지 행해왔던 생산의 수탁·위탁이나 외주부품의 공동구입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제휴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VC관 시장에서는 Alliance를 맺은 Sekisui Chemical과 Mitsubishi Plastics이 공동출자해 생산 통괄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수익성 향상에 힘쓰고 있으나 생산 뿐만 아니라 사업통합까지 결심한 Kubota와 CI Kasei의 선택으로 구조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Kubota와 CI Kasei는 2002년 PVC관 사업에 대해 포괄적 제휴를 체결해 판매와 공장통합을 제외하고 수익성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치를 공동으로 실시해왔다.

수요감소로 수급 밸런스가 악화되는 가운데 Kubota는 Odawara 공장에서 약 1만톤, CI는 Shiga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2만톤 미만의 설비를 폐기했다.

그러나 2003년 2사에서 총 20억엔을 목표로 한 합리화 효과는 연간 5억-6억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4월1일 설립될 예정인 새 회사 <Kubota CI>는 생산능력이 22만톤으로 시장점유율은 Kubota 22%, CI Kasei 9%로 총 31%에 달해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당분간 플랜트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Kubota 산하의 일본플라스틱공업을 포함하면 시장점유율이 37%로 상승하게 돼 주목되고 있다.

생산거점은 CI Kasei의 Tochigi, Kubota의 Odawara, Sakai, Hukuoka의 4거점이 돼 일본 전국을 망라하는 균형잡힌 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Kubota는 상수, 농업용수, CI Kasei는 하수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어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서로 보완함으로써 최대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PVC관 수요량

(단위: M/T, %)

구 분	수요(2003)	비 중	Kubota와 CI Kasei의 상황			
			Kubota	점 유 율	CI Kasei	점 유 율
설비(급수/폐수)	234,400	45	39,100	17	14,600	6
하수도	116,700	22	25,300	22	15,800	14
수 도	66,900	13	23,200	35	3,600	5
농업용수	20,400	4	6,700	33	2,700	13
케이블 보호관	8,700	2	2,500	29	300	3
기 타	19,200	3	3,000	16	1,300	7
특수제품	55,600	11	15,600	28	7,600	14
합 계	522,000	100	115,400	22	45,900	9

PVC관을 둘러싼 환경은 한층 악화돼 2003년 총수요가 52만 2000톤에 달했지만 공공사업 감소와 주택착공의 부진 등으로 연평균 5% 감소해 50만톤을 밑돌 전망이다.

PVC도 한발 앞선 재편이 추진되고 있어 가격형성력 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또 중국의 수요급증을 배경으로 원료가격이 급등해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

Alliance에 의해 Kubota CI, Sekisui Chemical-Mitsubishi Plastics의 양축이 형성된 PVC관 시장은 이제까지 각각의 과잉설비를 폐기해 왔으나 시장위축이 웃돌고 메이커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동률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12>